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인구 축소와 함께 생활서비스의 이용 기반과 지역자산의 관리 여건이 달라진다. 의성군 주민등록 인구는 2024년 12월 48,690명에서 2025년 12월 47,902명으로 788명 감소했다. 시설의 존재만으로 활용 방향을 정하기 어려워 주변 인구구조와 접근 여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본 프로젝트의 주제는 인구감소지역의 유휴·저활용 자원을 지역 통계와 연결해 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모델이다. 2025년 의성 청년연구자 활동에서 조사하고 청년 참여 정책을 제안한 전통수리시설 ‘못’을 첫 적용 사례로 삼았다.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은 2018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0호로 지정되었지만, 분석 대상 427개 못 모두가 유휴시설이거나 개별 지정 유산이라는 뜻은 아니다. 모델의 핵심 질문은 ‘인구감소지역의 자원별 수요와 여건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고, 활용·보존·관리·현장조사·자료 보완 중 어떤 정책 검토를 시작할 것인가’이다. 의성 사례에서는 읍·면 인구구조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시설별 도달 규모를 SGIS 생활권역 통계로 보완했다.

□ 추진과정

의성의 못은 공통 정책검토 절차를 설계하고 산출물을 검증하기 위한 사례다. 자원 목록과 좌표 품질을 확인한 뒤 생활권 수요·지역 인구구조·접근성·주변시설을 결합하고, 시설별 검토 근거와 현장 확인 대상을 산출하는 순서로 구성했다.

① 의성군 경계 안의 못 427개를 고유 ID로 정리하고 좌표 품질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2025년 12월 읍·면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를 지역 배경자료로 연결했다. 청년은 만 19~39세, 고령은 만 65세 이상으로 정의했다.

② SGIS 생활권역 통계지도와 개발지원센터 OpenAPI의 주행권역·통계 기능을 이용해 각 못의 2024년 기준 5분·10분 주행생활권 인구를 요청했다. 응답이 없는 값은 DATA_NOT_AVAILABLE로 남겼다.

③ VWorld 도로와 생활·공공·문화·관광시설을 결합해 최근접 도로 객체까지의 직선거리와 반경 1km 주변시설 수를 산출하고, 시설별 정책 검토표와 지도를 만들었다. 주행생활권 시간과 도로 객체까지의 직선거리는 서로 다른 지표로 구분했다.

■ 활용분야 및 주요내용

공공정책·연구 분야에서 인구감소지역 유희·저활용 자원의 정책 검토 모델을 구축했다. 의성 못 사례에 SGIS 주행생활권 인구를 적용해 후속 조사와 정책 협의 대상을 구분했다.

□ 추진내용

가. SGIS 생활권역 인구와 자료 품질 확인

전체 427개 가운데 대표점·인근좌표·중복좌표 47개를 생활권 인구 비교에서 제외했다. 좌표 조건을 통과한 380개 중 5분 인구는 175개, 10분 인구는 190개, 두 시간대 모두 175개에서 확보했다. SGIS 인구는 해당 주행권역의 인구 통계로, 실제 방문객 수나 시설별 거주인구가 아니다.

나. 여섯 가지 정책 검토 맥락

SGIS 10분 도달인구와 5분에서 10분으로 확장했을 때의 인구 증가 폭을 읍·면 청년·고령 비율, 주변시설, 좌표 품질과 함께 검토했다. 조건 적용 순서를 고정해 각 못이 아래의 한 맥락에만 속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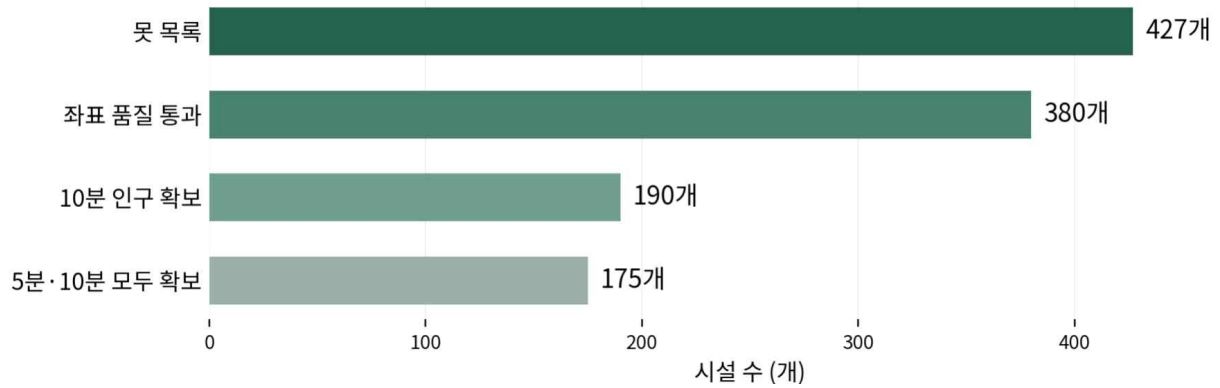


그림 1 427개 못의 SGIS 분석 가능 범위

정책 검토 맥락	주요 근거와 후속 확인	못 수
현장 확인 필요	좌표 품질 조건 미충족 → 위치·관리상태 확인	47
10분 인구 미확보	좌표 조건 통과·10분 응답 없음 → 재수집	190
공동체 지원 검토	고령비율 상위·매핑시설 0개 → 주민 수요 확인	53
청년참여 검토	청년비율 상위·SGIS 응답 → 참여 방식 협의	43
접근·도달 검토	10분 인구 또는 증가폭 상위 → 이동·이용 여건 확인	20
맥락 참고	위 조건 외 → 추가 근거 확보	74

표 1 정책 검토 맥락

‘상위’는 확보된 분석값의 제3사분위수를 뜻하며 확정된 사업 선정 기준은 아니다. 주변 매핑시설 0개 역시 확보한 VWorld 레이어에서 객체가 없다는 뜻으로, 실제 서비스 부족을 확정하지 않는다.

다. 별도로 관리하는 규칙기반 활용유형

활용유형은 SGIS 인구를 입력으로 쓰지 않는 별도 규칙이다. 정책 검토 맥락과 점수로 합치지 않았으며, 보존·기록형은 다른 활용 규칙에 해당하지 않을 때 적용한 보수적 기본 분류다.

활용유형	실제 판정 근거	못 수
보존·기록형	다른 활용 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 분류	329
문화·관광형	도로거리 300m 이하·1km 내 매핑시설 1개 이상	55
생태·교육형	농업지역 비율 상위·도로거리 500m 초과	43

표 2 별도 규칙기반 분류

보존·기록형 329개는 보존가치가 조사로 확인된 숫자가 아니다. 생태·교육형 역시 생태가치 실측 결과가 아니므로 활용·복원 결정에는 현장 관리상태, 안전성, 주민 의견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 추진성과

첫째, 427개 못의 고유 ID에 SGIS 응답, 읍·면 인구구조, 도로 접근성, 주변시설과 좌표 품질을 연결한 정책 검토 자료를 구축했다. 10분 인구를 확보한 190개는 도달 규모를 비교할 수 있고, 응답이 없는 190개와 좌표 확인이 필요한 47개는 후속 보완 대상으로 분리했다.

둘째, 접근·도달 20개, 청년참여 43개, 공동체 지원 53개를 현장 협의가 가능한 검토 맥락으로 정리하고 관리상태·사진·조사일·의견을 입력할 양식을 마련했다. 이는 사업 대상 확정이나 행정기관 채택 결과가 아니라 다음 조사를 위한 근거표다.

셋째, 25년 의성 청년 연구자 활동으로 ‘청년 못 조사단’과 ‘못 기록화 사업’ 등 못을 활용한 청년 일자리 발굴 등 정책 제안을 했다. 청년이 위치·상태 조사, 디지털 지도와 구술기록, 농업·생태·지역문화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관련 부서와 관리주체가 안전·유지보수·복원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넷째, 2026년 의성 농업유산 지역에서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생·교직원이 게임·웹소설·SNS 숏폼 제작과 마을환경 정비 등에 참여한 별도 사업이 발표되고 활동 결과가 게시되었다. 2025년 제안과 유사한 청년 참여 방식이 뒤이어 의성에서 실행된 참고 사례다.

다섯째, 자원 목록 구축 → 좌표·자료 품질 점검 → SGIS 생활권 수요 결합 → 주변 여건 비교 → 정책 검토 맥락 구분 → 현장 확인으로 이어지는 공통 절차와 시설별 근거표·입출력 구조를 완성했다. 의성의 427개 못 사례로 작동을 검증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자원별 정책 제안을 구성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 추진하여 얻은 결과(성과물, 언론보도 등) 기술

1) 2025년 청년연구자 선행연구

- 의성군 청년센터의 「청년연구자 의성 살아가기」 활동을 계기로 의성 전통수리시설 ‘못’을 연구 주제로 다뤘다. 작성자의 개별 활동은 아래 결과물 보관본으로 확인한다.

2) 외부 자료와 출처

번호	출처 · 기준시점	실제 사용 범위와 확인 링크
1	국가데이터처 SGIS, 생활권역 통계지도, 인구 기준연도 2024	못별 5분 · 10분 주행권역 인구 . 서비스, OpenAPI 인증 · 사용방법 ,
2	행정안전부, 지역별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현황, 2024년 · 2025년 12월	의성군 18개 읍면의 총인구 · 청년(만 19~39세) · 고령(만 65세 이상) 행정 배경지표 . 공식 조회
3	VWorld UQ151 도로 · UQ164 공공/문화시설 · UO601 관광시설 저장본	도로 객체까지의 최근접 직선거리 와 반경 1km 내 매핑시설 수.
4	작성자 보유 못 목록 · 경계 · 농업지역 공간자료	427개 못의 위치 · 품질 · 주변 농업지역 분석.
5	의성군 청년센터, 「2025년 청년연구자 의성 살아가기」, 2025-05-06	선행연구의 사업 배경 . 청년센터 모집 공고 .
6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의 재능으로 농업유산의 가치를 알린다」, 2026-07-09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0호 배경 및 별도의 대학생 참여 사업. 공식 게시문 , PDF

3) 작성자 공개 연구 자료

보관 파일	확인 범위 · 인용 방법
작성자 공개 연구 · Web GIS 저장소	선행 GIS 데이터를 이후 웹 지도에 재구성한 경과.

4) 관련 언론보도

매체 · 날짜	기사
경북매일, 2026-07-13 등록 · 07-14 게재	농업유산 가치 잇는 청년 봉사... 의성 전통수리농업 보전 힘 모은다